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마지막 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공동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오월의 주일 아침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과 들의 만물이 저마다의 빛깔로 주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만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그릇된 기준과 과거의 아픈 상처로 왜곡된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삶의 참된 모범을 찾지 못하여 표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글과 책은 넘쳐나지만 참된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는 스승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주님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위로의 말씀 사62:4

♠ 교 독 문 79. 요한복음 15장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권미정 집사 II. 한상의 장르

응 답 송

찬 양 288(통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봉독 I. 왕하 2:4-12

..... II. 행7:54-60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늘과 이어진 사람 김재홍 목사

..... II. 아, 스테반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찬 양 445(통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분노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평안과 용서가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며 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전혀 주님처럼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입으로는 평화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분노와 미움 속에 살았던 저희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평화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예레미야서 / 김재홍 목사
	기도 : 박범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박소진 선생	임창주 학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진정숙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훈동 조관행 유경순 홍선희 이현숙
	헌금위원	한상익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창조 영성가 예수

... 골목길에 새싹이 돋은 것을 보게 되면, 집에서 키운 화분에 꽃이 핀 것을 보게 되면, 가로수에 신록이 시린 것을 보게 되면 그저 ‘예쁘다’ 하면서 지나치지 말고 거기 멈춰 서라! 제발 서라! 그리고 오감을 동원해 그것을 묵상해 보라.

풀, 꽃, 나무를 묵상하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가? 말과 문자만 묵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물, 소리, 상징, 이미지도 묵상의 대상이 되지만 이콘icon과 이미지 파괴주의자(성상파괴주의자)의 후손인 우리는 이런 식의 비언어적 묵상에 익숙지 못하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할 때 ‘보라’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뜻이고 그것은 곧 비언어적 묵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산에 머무시고 지천으로 핀 아네모네 밭을 거니시고 광야의 들짐승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등 생태적 묵상을 즐기셨을 것이다. 우리 역시 풀, 꽃, 나무를 보고 듣고 맡고 만지고 맛보다 보면 차츰 비언어적 묵상 및 오감묵상에 익어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1, 2밀리미터에 지나지 않는 꽃다지에서 무한한 우주를 보게 되고, 흔해 빠진 들꽃 한 송이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무색케 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분주함의 횡포에 휘둘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낮은 곳에 돌아 있는 작은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 어떤 아포리즘(잠언)을 읽는 것보다 벅찬 환희에 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연 계시 그 자체를 찾아내는 기쁨도 황홀하거니와 그 자연계시가 나의 특별계시의 지평과 만나는 경험은 감당할 수 없는 희열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카데미한 신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존 스토틀처럼 새를 곁에 둬으로써 일종의 자연신학자가 될 수 있다. 풀, 꽃, 나무를 관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 둔 묵상거리를 찾아내는 하나님과 나의 ‘보물찾기’가 된다.

에크하르트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했듯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다 다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설익은 많은 말로 떠들어 대지만 나무는 그냥 꽃을 피울 뿐이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 타고르

꽃피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간증이자 선포로 다가오면, 자연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말한 대로 “창조주의 영광과 사랑이 그 안에 숨 쉬고 나타나는 성례전”임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봄꽃 핀 들판이야말로 성례가 행해지는 교회당이 아니겠는가. 민들레 몇 송이가 핀 골목길은 개척교회 예배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거기서 생태적 참회가 이뤄지고 초록색 성찬이 베풀어진다.

풀, 꽃, 나무 목상을 통해 창조영성을 일구다 보면 들풀이 벗이 되고 만물이 동료 피조물로 다가온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대지의 가슴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사, “좋다!”가 박혀 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며 “예쁘다” “멋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탄사에 추임새를 넣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사에 대해 “너도 예쁘다”고 화답하는 추임새를 넣어 줄 것이다.

… 자연주의 영성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믿음 생활의 ‘옵션’이 아니다. 존 스토틀가 말했듯 주님은 평서형이 아닌 강한 명령형으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고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고 하셨다. 어떻게 조류연구전문가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답한 존 스토틀의 말은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교훈을 담고 있다. 실제로 자연주의 영성을 맛보게 되면, 사는 재미가 생기고 모든 걸음마다 기쁨을 맛보게 된다. 삶이 실로 풍성해진다.

생태적 감수성이 오늘날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자연을 통해 경험하는 신비로움이 오늘날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중독을 기반으로 한 후기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극복하는 강력한 항체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매튜 폭스는 『창조영성』에서 신비주의의 쇠퇴와 소비의 증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우주론을 잃으면 즐거움도 잃는다. 기쁨은 물건을 구입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남 얘기나 수군거리고, 드라마 속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가짜 즐거움으로 바뀐다.” 자연의 신비를 잃어버린 시대와 창조의 책을 읽지 않는 교회가 필시 소비주의 및 성취만능주의에 빠지게 됨은 역사가 증언하는 바다. 반면 창조의 신비를 제대로 맛보게 되면 소비대중문화가 주는 사이버 신비와 반생태적 물질문명이 얼마나 하수(下手)의 것인지 알게 된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창조영성가이신 당신의 모습을 빛으소서.

어느 대나무의 고백

북효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개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뼈개지도록 흰다 흔들린다
 제 때에 이냥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퍼지는 장군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흥흥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어던 것이다
 아아, 고백하건대
 그 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있는 것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성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경연 김용길 최영혜 김필순 손성현 윤미경 이예정
전월수 이재문 김민화 조문규 진정숙 이한림 김명희 이어진 이광용
형인순 전해민 무명

월정헌금:

고숙이 김미순 김윤정 김정섭 이봉배 이성범 이소순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전영자 하현철 최성애 박인혁 나승철 이갑재
무명2

감사헌금:

강인식 김정숙 이동천 박병구 김정애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김용진
박효선 김재광 김용길 최영혜 유병선 정현선 한상익 정영선 전 용
박준희 이기분 박규석 박경선 시므온선교회 나오미선교회 무명3

녹색꿈헌금:

장영숙 최경미 문금석 임창선 박영희 무명

생일헌금:

김대규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레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스승의 날** :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선교회**: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웨슬리회심기념집회** :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72주년을 기념하는 중구용산지방 연합집회(강사: 송기성 목사)가 5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남동교회에서 열립니다.
4.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5월 월례포럼이 17일(월) 오후 7시에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김삼웅 선생님(제7대 독립기념관장)입니다.
5. **신앙실천** :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시온 속)

* 설거지 봉사 : 이지훈 김진영 김인걸 (다음 주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 새교우 :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